

京城帝大 齒科學教室의 沿革

日本 東京都 丸之內 診療所長 生田信保
(1948年 8月 執筆當時)

- ◇…… 本文은 大韓齒科醫學研究會誌 第 2 卷(1961年度)에 掲載된바 있는……◇
- ◇……內容을 轉載하는 것입니다. “生田信保”先生은 1930年代 京城齒專에……◇
- ◇……서 敎鞭을 잡으신 분이로서 原來는 日本國에서 發行하는 「齒界展望」……◇
- ◇……제 11 권(1948年 8 月號)에 掲載했던 것임을 添言합니다. (編輯子 註)……◇

京城帝國大學의 創立

歷代의 總督이 武斷政治를 하고 있었지만 그 反面 朝鮮의 產業·教育·交通其他 諸般의 施設은 舊態를 벗고 一大進展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大正 8年(1919) 9月 朝鮮總督의 印綬를 두른 齋藤海軍大將이 着任한 뒤부터는 武斷政治를 文化政治로 바꾸었다. 그 中에도 教育은 初等教育부터 大學教育에 이르기까지 모두 日本本土의 制度에 準하여 完成되어 가자 朝鮮民衆의 教育의 基礎가 確立되어 面目을 一新하게 되었다.

大正 11年(1922) 2月 朝鮮教育令을 改正하고 1923年 11月 京城帝國大學 創立委員會를 두고 大學의 設立이 具體化되었다. 大正 13年(1924) 5月 2日 京城帝國大學官制가 公布됨과 같이 大學豫科가 開校되고 1926年(大正 15年) 3月 第 1 回의 修了生이 나오고 同年 4月 1日 京城帝國大學官制가 改正되어 同年 5月 1日에 法文學部及 醫學部의 授業을 開始하게 되었다. 다시 昭和 3年(1918) 6月 醫學部附屬醫院은 朝鮮總督府醫院을 移管함으로써 誕

生되었다. 1938年 4月 理工學部를 加하여 昭和 16年(1941) 4月부터 開學함에 이르러 名實共히 綜合大學으로서의 陣容은 加추어졌다고 하겠다.

昭和 20年 8月 敗戰에 依하여 自然廢校의 運命에 빠졌다.

同大學 醫學部の 設立

大正 15年(1926) 4月 1日附로 志賀潔教授가 初代醫學部長에 補함을 받아 醫學部가 設立되었다. 基礎醫學의 敎授는 內地各大學에서 赴任되어 왔다. 附屬醫院은 朝鮮에서 唯一한 病院이었던 朝鮮總督府醫院을 發展의으로 解消시킴으로 이루어졌다.

臨床醫學의 敎授는 將來敎授로 任命되어진다는 條件下에서 赴任한 朝鮮總督府醫院의 醫官中에서 採用하였다.

齒科學教室의 設立

齒科學教室은 다른 臨床醫學의 敎室과 마찬가지로 昭和 3年(1928) 6月 1日 朝鮮總督府醫院齒科部가 看板을 바꿔달므로서 생겼다. 陣容으로서는 助敎授 講師 助手 副手라는 職別이 組織되어 助敎授가 敎室

主任이 되어 主宰하게 되었다. 助敎授에는 筆者가 任命되고 講師에는 柳樂達見氏가 촉탁되고 그 밖에 助手 2名, 副手 若干名이 採用되었다.

齒科學은 所謂 講座制가 아니지만 3學年及 4學年生에게 齒科學講義及 患者臨床講義를 하겠금 되어 있었다. 講義는 3學年의 學生에게 每週 1時間씩, 처음엔 柳樂講師가 擔當하고 患者臨床講義는 4學年生에게 每週 3日間 午前 9時부터 12時까지 外來에서 實施하게 되어 筆者가 이것을 擔當했다. 數年後 齒科學講義도 筆者가 擔當하게 되었다.

齒科學敎室은 助敎授에 依하여 運營되어 왔으나 昭和 20年 敎授會에서 敎授로 昇格하기로 決定하였다. 그러나 筆者는 敗戰으로 물러나고 翌年 內閣으로부터 勅任敎授의 辭命을 받아 所謂敗戰敎授의 榮譽를 얻게 되었다.

附 記

여기에 齒科學敎室이란 看板을 붙여 두었지만 最初엔 이것으로 通했으나 齒科學은 講座制가 아니라

해서 教室이라는 名稱을 使用하면 形便이 나쁘다는 教授會의 意見으로 齒科診療部라는 名稱으로 格下되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當時의 醫學部長 高福教授에 對하여 여러 가지로 意見을 올렸으나 끝내 採用되어지지 않았다. 결국 齒科學은 診療機關이고 研究機關이 아니라는 意味도 多分히 포함되어 있어 이것은 助教授를 任命하고 研究室과 研究費를 下附한 以上 훌륭한 研究機關이라는 것을 官制止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더욱 講座制가 있는 教室에 떨어지지 않는 研究論文을 發表하고 있음만 보아도 研究機關이라는 것을 證明하고 있다는 意見을 말하였으나 無効였다.

齒科講義와 患者臨床講義

이때 一般醫學生사이에는 齒科學 따위는 몰라도 좋다는 風潮가 돌고 있어 어떻게라도 이 醫學生의 興味를 이끌만한 內容을 가진 講義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當時 醫學生에게 參考가 될만한 參考書는 2~3卷 있었으나 탐탁스러운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그러하여 醫學生에게 齒科學을 가르치는에는 齒牙 및 口腔疾患의 所見에 依하여 全身의 또는 隣接領域疾患의 診斷 또는 治療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말함과 동시에 病理學的으로나 生理學的으로 또는 解剖學的으로 全身의 機構를 훑어 볼때 有力한 資料의 하나가 될만큼 連結을 붙여 講義함으로써 모르는 사이에 齒科學의 主要性을 理解하겠끔 努力했다. 특히 나는 患者臨床講義에 힘을 기울여 齒科學의 價値를 認識시키도록 했다.

가장 效果의이었던 것은 上顎骨折이나 下顎骨折, 顎骨切除의 補綴에 관한 문제로 열심히 聽講하며 討論하는 學生이 많았고 實習에 臨해서는 齧食을 잊고 努力한다는 雰圍氣가 이루어진 것은 극히 意義

깊었다.

卒業生이 外科教室에 入局하여 顎骨骨折의 症例를 擔當함에 있어 從來의 骨縫合의 術式을 버리고 齒科로 廻送하며 顎骨切除의 患者는 手術前에 齒科에 보내어 協力을 求하여 萬全의 策을 講究하여 患者에게 幸福을 가져오도록 努力한 事實은 實로 敬服할만한 것이 있었다. 또 放線菌症의 患者를 齒科의 臨講에서 본 學生이 齧食時에 話題의 꽃을 피우면 當番이 아닌 學生들까지도 踴躍히 듣고 와서 患者의 診察을 希望한 熱心派도 적지 않았다. 그 가운데 外科의 臨講에서 放線菌症患者에 부딪치면 곧 放線菌症이라고 診斷하여 教授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報告를 해오는 學生도 있었다. 이렇게 한것은 내가 講義한 齒科學이 醫學生에게 어느 程度 저작되었다는 것을 證明하는 하나의 事實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여 이것이 京城帝國大學醫學部に 齒科學教室을 두었다는 것이 決코 잊히지 않음을 如實히 말해 주고 있다 하겠다.

齒科研究室

齒科研究室은 相當한 넓이와 整備 밑에서 18年間 運營되어 왔는데 그동안 入室하는 者는 各地의 齒專卒業生이었고 그중 京城齒專出身이 地域의 關係로 斷然 많았다.

研究課題는 널리 實驗病理學의 分野에까지 미치는 데다가 많고 學位論文을 提出하여 學位를 請求한 사람도 적지않았었다. 한 各醫科大學의 研究室에서 發表한 研究와 接觸되는 것도 있어 크게 論爭을 하여 京城大齒科學教室의 存在를 確保했다.

나는 大學이 힘이나 政治가 暗躍하는 곳이 아니고 大學수이 定하는 바에 따라 研究面에선 一切의 權力이나 情實의 混入을 避하도록 努力해 왔다. 지금까지도 不幸으로 생

각하는 것은 京城大醫學部教授會 처음에 齒科論文을 審査하지 않는 內規를 만들어 發表한 일이있 데 마침 齒科研究室에서 論文 다 되어가는 찰나있기에 精神의 큰 影響을 받아 이 때문에 動하는 者도 생겼다. 그러나 뜻은 이하여 死力을 다한 結果 다행: 京城帝大醫學部나 慶應義塾大學醫學部에서 好意的으로 論文을 받 들어 審査를 해주게 되어 이 不値은 곧 解消되어 教室員에게 安定을 줄수 있었다. 특히 이 點에 있어서는 慶大醫學部教授會의 格別取級에 對해 深甚한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이다.

그런데 時代도 달라지고 사람도 變해지자 城大醫學部도 周圍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우릴 수도 없게 되어 이 어두운 內規도 호지부지 없어지는 時期가 到來하여 齒科論文을 審査하도록 바꾸어졌다.

그래서 齒科教室도 그럭저럭 軌道에 올라 成層圈航空醫學이나 「카신백」氏病의 研究陣에 參加하여 重要한 役割을 나타내었지만 昭和 20年 8月 15日로 京城帝國大學이 消失됨과 함께 齒科學教室도 역시 永遠히 사라져 갔음은 實로 感慨無量하다. 그러나 언제이든 獨立한 韓國이 文化의 날을 맞아 回顧하는 가을이 오면 우리들이 그양에 심어둔 齒科醫學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맞볼 때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參考

- 京城齒科醫學學校 開校日 1922年 4月 15日
- 總督의 指定을 받은 날 1925 " 2 " 28 "
- 小公洞校舍敷地無償貸下日 1927 " 3 " 22 "
- 新校舍 落成日 1928 " 9 " 27 "
- 專門學校 認可 1929 " 1 " 25 "
- 文部省의 指定을 받은 날 1931 " 3 " 13 "